

식물을 알지 못하고 숲으로 가면 숲은 그저 나무와 풀로 구분된다. 아니 이런 구분도 정확하지 않은 수가 있다. 그러다가 숲 속의 풀과 나무에게 이름을 따로 따로 불러줄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정말 김춘수의 시처럼 이들은 하나하나 의미가 돼 새로 태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식물들의 경쟁과 공존 등 생태적인 지식이 보태지면 자연의 세계는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또 단풍이 왜 드는지 같은 생리적인 정보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보태지면 정말 식물을 공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내 새로운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도대체 식물들은 어떤 생각이나 의도로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간혹 '식물의 사생활' 혹은 '식물의 정신세계' 라는 제목을 단 책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하지만 궁금증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다.

### 인간이 식물을 보는 또 다른 관점 답아

그래서 '식물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욕망의 식물학》(서울문화사)을 접했을 때는 설레기조차 했다. 드디어 식물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끈을 만났구나 하는 반가움 때문이었다. 책을 보기 위해 시간표를 짜보기는 학교 다닐 때 시험공부를 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은 제목이나 서문 혹은 홍보문안을 읽고 나서 품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기대와 내용의 차이가 문제다.

이 책은 '식물이 보는 관점' 이기보다는 "인간이 식물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란 부제가 붙어야 했다. 어찌면 여기에 등장한 식물들이 사과, 마리화나, 감자, 튤립과 같은 아주 인위적인 요소가 가득한 식물들임을 보았을 때 미리 의심했어야만 했다. 식물의 욕망을 알고자 하는 일에 욕망을 품은 나를 포함한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이 책이 자연을 보전하는 메시지에 목표를 두고 엮어갔다면 더욱 좋았겠다. 이 책은 사과나 튤립을 실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교훈은 이렇게 중요한 작물들을 인간이 두루두루 잘 이용하려면 풍부한 야생의 유전자원을 유지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며 그래야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과일과 꽃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친다.

이 식물들이 널리 그 세력을 전파하려고 인간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감자편에서는 생명공학 감자의 위험성과 유기농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역시 앞의 두 식물과 같은 교훈에 다시 접근한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화나편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비록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지은이가 마리화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신 혹은 신경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워낙 항정신성 물질에 대해 금기시하는 풍토 속

이 책은 '식물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란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인간이 식물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 정확한 부제가 될 것이다. 사과나 튤립 같은 식물을 실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은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교훈은 단순하다. 이렇게 중요한 작물들을 인간이 잘 이용하려면 풍부한 야생의 유전자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과일이나 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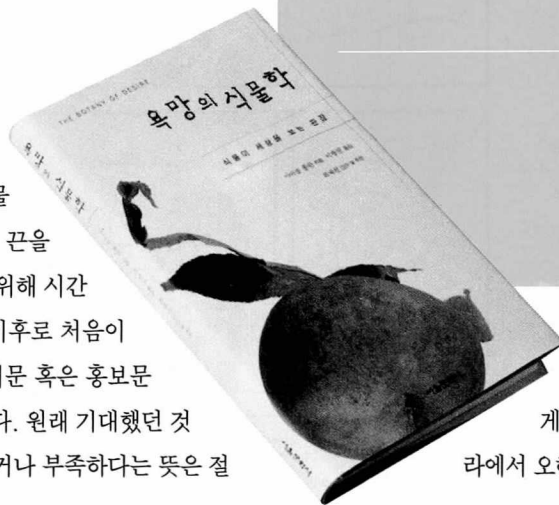
책갈피 산책

## 《욕망의 식물학》

인간의 관점에서 식물의 실용성 밝혀

마이클 폴란 지음 | 이창신 옮김  
서울문화사/A5변형/340면/12,000원

이유미 | 국립수목원 연구사



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외국에서는 이런 면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하지만 약물을 금지하는 나라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 인간과 식물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찾기 힘들어

이 책을 읽고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내가 지은이와 같은 해박한 지식과 알고자 하는 것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살아 있는 정보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식물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며 우리가 왜 다양한 식물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지키고 보전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순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꾸 이렇기만 하다.

게다가 원문번역에 너무 충실하려 했는지 우리 글 문맥이 어색해 흐름을 타고 글을 읽을 수 없다. 자꾸만 뒤로 가서 다시 읽고 뜻을 새겨야 했던 점도 아쉽다. 그것이 내 읽기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도 또한 할 말은 없다. ■

이유미씨는 현재 국립수목원 연구사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 100가지》(쉽게 찾는 우리나무) 《숲으로 가는 길》(한국의 천연기념물) 등을 펴냈다.